

# “내가 변해야 평화 옵니다”

## 생명평화학교 개설한 정해숙 교장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위하여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깨침의 존재입니다”

6월 26일 곡성 성문사에서 ‘빛고를 생명평화학교’를 개설하고 첫 수련모임을 가진 정해숙(69, 사진) 교장은 “평화기운을 사회로 확산 시키기 위해서 우선 내가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천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스스로 운영되는 학교 되길”발원

지난해 11월, 남원 실상사에서 결성된 지리산생명평화결사의 생명평화학교장으로 추대된 정 교장은 “5·18정신이 살아있는 빛고를 광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명평화학교가 개설돼 뜻깊다”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는 등 불들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학교 선생님이러면 수업중 잠깐이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찾도록 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훈련되어야 합니다. 평화학교는 이처럼

교사, 부모가 먼저 평화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자로 시작해 초대 전교조 전국위원장직을 지냈고 각종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정 교장이 생명평화운동가가 된 것은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을 전경하면서부터. 1983년 광주 선덕사에서 처음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던 정 교장은 눈을 잃고 청화 스님의 얼굴만 쳐다봤다고 회고한다. ‘살아있지 말라’를 생명존중 사상의 극치로 생각하다가 ‘미물까지도 살생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스님의 법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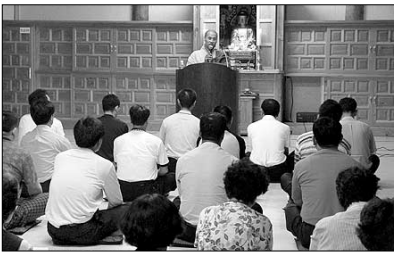
20여년 넘게 청화 스님을 시봉하며 정 교장은 정 교장은 3년전 지리산에서 열린 천도재에 참가한 이후 생명평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명평화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 근본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내 안의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한편 지리산평화결사가 지역별로 개설하는 생명평화학교는 특별히 건물이나 장구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책임자를 뒤 필요에 따라 시간, 장소에 얽매지 않고 개설된다. 평화사약을 한 등불(화염)이면 누구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첫 문을 연 빛고를 생명평화학교는 김민혜 목사(http://cafe.daum.net/peacegji)의 책임 아래 30여명의 등불이 모였다. 첫 수업 교사로 생명평화대학원 레단을 이끌고 전국을 순례하고 있는 도법 스님이 초청돼 다음날까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곡성=이준업 기자**

### “불심 가득신교 안전운행 해요” 전국여객연합불자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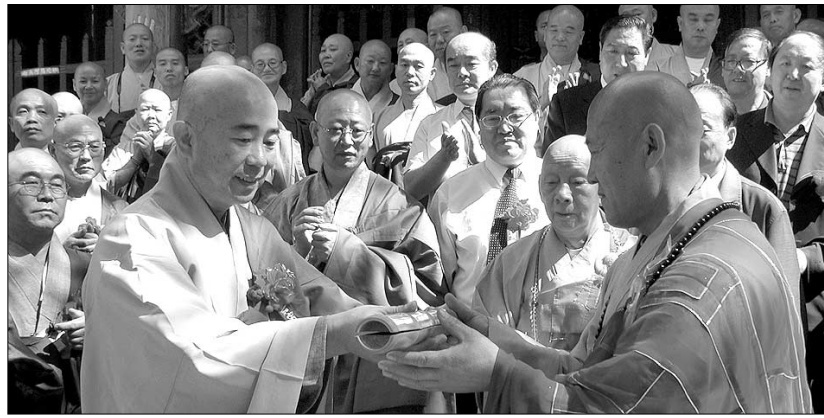
고속, 시외,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불자모임이 창립됐다(사진). 전국 버스운송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6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대한민국 여객연합 불자회(이하 전국여객불자회)’ 창립총회를 갖고 ‘불심운전, 안전운행’을 다짐했다. 금호고속 이재술 포교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을 확정했다. **회장 인터뷰, 14면**

이날 창립총회에는 금호, 한진, 중앙, 호남, 경북, 세서울 고속 등 고속버스와 용남, 관당, 코오롱 관광 등 총 14개 업체 소속 운전자와 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창립된 전국여객불자회는 회칙에서 “버스사고의 대부분은 운전미숙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다”며 “불교의 정근과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안전운행토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해남=이준업 기자**

## 한·중 오대산 문수신앙 재회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사진 왼쪽)과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장 묘강 스님이 한국과 중국의 오대산 자매결연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월정사

### 자매결연 및 대법회 봉행 문화·수행교류 활성화 약속

1400여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문수신앙이 재회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 스님은 한·중 양국간 불교문화교류와 수행교류 활성화를 위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오대산을 방문,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 하에 한·중 오대산 자매결연 및 국제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25일과 26일 오대산 수당사에서 열린 자매결연식 및 국제평화기원대법회에는 주지 정법 스님과 ‘문수성지순례단’ 200여명,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근통 스님(수당사 주지), 오대산 불교협회 회장 묘강 스님 등 중국 오대산 내 47개 사찰 2,000여 스님이 참

석했다.

정법 스님은 결연사를 통해 “불교수행과 학술관련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통 스님도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양국 스님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측은 “향후 양국 스님들을 해당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초청해 안거 정진토록 함으로써 양국간 수행교류를 활성화하며,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의 대중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8월 14일(음력 7월 1일)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 대축제”에 참가해 조계종의 육법공양 또는 연산재 시연을 통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10월 8일 월정사 개산일에 맞춰 열리 는 ‘강원 오대산 불교문화 대축제’ 때 중국측 을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동우 기자**

### 박준영 신임 전남지사 초청법회



지난 6·5 보궐선거에서 제34대 전남지사로 당선된 박준영 신임지사 초청 ‘국가와 광

### 회광당 일각 스님 8주기 추모제



회광당 일각 스님 8주기 추모법회가 6월 25일 순천 송광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준업 기자**

주·전남발전 기원법회’가 6월 26일 광주 무각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사진).

광주·전남교구본사협의회(회장 명섭 화엄사 주지)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전남지역 각 종단 본사 신하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도지사는 물론 사부대중이 한마음되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원했다.

이어 박준영 지사는 인사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아끼없는 지원과 부처님의 지혜로 광주·전남지역이 살기좋은 땅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준업 기자**

주지 영조 스님의 청원으로 시작된 이날 추모제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 법흥(송광사 회주), 천운(대흥사 조실), 원명(대구 관음사 주지), 현호 스님 등 돈도와 재가불자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현황, 현대에 이어 추모사에서 천운 스님은 “송광사 전 방장이었던 일각 대종사는 선승이자 학승이며 철두철미한 수행승이었다”고 회고하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에 더욱 매진하자”고 추모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대중들은 일각 스님 부도암이 모셔진 탑전에서 탑돌이로 추모법회를 회향했다(사진). **이준업 기자**

## 지금, 우리 삶에서... 대구 해광사

### 그림보며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절

대구시 남구 대명 8동 주택가 한 복판에 단아하게 자리한 해광사. 신사의 고찰은 아니지만 숙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잡아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달래주는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광사를 들어서면 1층 현관을 지나 3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곳곳에 서산대사 진영, 관음 보살상, 달마상 등 다양한 선서화가 오는 이들을 맞이하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주지 진일 스님이 몽골 불교대학 객원 교수로 있을 때 그랬다는 초원을 달리는 말 그림은 자유와 생명의 힘을 전해주는 듯하다.

법당에 들어서면 아마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법당천장에 중국에서 구해왔다는 나무대방광 불화엄경이

매일 아마타불 염불을 통해 만 번 이상 먹을 갈아 반야심경 8쪽을 써 놓고 하루 일을 시작한다.

해광사는 만 번 먹을 갈아 만든 반야심경 병풍과 무려 11m에 달하는 불(佛)자 등 부처님의 뜻을 전할 정성스런 선서화들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의 전통을 찾던 진일 스님은 10년 전 몇몇 뜻 있는 스님과 중국으로 가 소림사 방장이자 주지인 소이 선사로부터 불기 2538년에 전법계를 받고 우리나라 조동종을 중흥하는데 일조했다.

현재 진일 스님은 조동종 중앙종회 의장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

### 법당안 선서화 전시 불법 홍보 불교복지, 후진양성 위해 노력

고 있다. 해광사 건립 16년, 진일 스님은 해광사의 제 2 도약을 꿈꾸고 있다. 7월 2일 티베트의 핀란드 라마 스님을 계사로 국제보살계를 봉행하고 가을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선서화전 개최를 통한 불법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 1997년 경산 해광사 불사를 추진한데 이어 경북 청도 인근에 남굴당과 불교복지, 후진양성을 위해 제3의 해광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053)473-3131

며 건강생활 복지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노인 건강을 위한 노력도 기울

해광사 신도들은 “아미타 후불탱화를 해광사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주지 진일 스님이 기도 후 직접 그려서 봉안했다는 아미타 후불탱화가 180° 회전하며 신도들을 응시한다는 것.

1996년 1000원 기도를 통해 처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그리게 됐다는 진일 스님은 그동안 8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전문 선서화 작가이며 2회째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선서화를 통해 부처님 법을 대중들

배지선 기자



대구 해광사의 자랑인 후불탱화와 아마타 삼존불 앞에서 주지 진일 스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5차 거금도 거금선원 여름수련회 참가안내

바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을 고래라고 하지만 밑없는 배를 타면 삼매의 바다에서 번 배 같이 노닐 수 있습니다. 처기 파도소리가 들리십니까? 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도소리를 따라 곧장 들어가십시오.

차수	기간	정원	대상
1차	7월 29일(목) ~ 8월 1일(일)	50명	청소년-일반인
2차	8월 4일(수) ~ 8월 7일(토)	"	"
3차	8월 11일(수) ~ 8월 14일(토)	"	"
4차	8월 18일(수) ~ 8월 21일(토)	"	"
5차	8월 25일(수) ~ 8월 28일(토)	"	"

- 수련내용 : 묵언,바루공양,부처님호흡법,좌선의,수심결경의, 활구참선법(간화경절문),선체조
- 신청방법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원하는 차수,종교,수련경험,참가사유(A4지 용지에 작성 팩스로 접수)
- 수련회비 : 일반 - 9만원 / 청소년 - 5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501023-01-000401 거금선원 (접수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 준비물 : 필기구,세면도구,우산,공양미(1봉지)고무신,손전등,상,하 복복이 있는분은 가져올 것. 모자
- 접수안내 : 전화 061-842-8488 / FAX 061-842-8487 인터넷 http://www.gukumzen.com

주말수련안내 (10인 이상 단체 환영)

- 일시 :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후 2시
- 준비물 : 손전등, 모자, 공양미(봉지), 회비 5만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 9-2 ☎ 061-842-8488

대한불교조계종 수련전문도량 거금선원 선원장 일선 합장

신라천년의 승결, 화강이 나를 부른다-

##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맞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연 제 : 아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안월)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월 2만원, 안월 60만원, 성인 - 1월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춘)

- 수련내용 -

- 안반수의 수행법, 전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 기림사, 감은사지, 강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 주지스님의 초법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원희교사 · 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시간	내용	시간	내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성)
6시	조식,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성)
7시	이침 공양(밭우 공양)	16시	윤력(도량 청소년 및 참보좌)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의뢰(학성)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오 및 취침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